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1930년대 후반 동인지지(詩誌)와 시인

이유미*
김바로**

초록 이 글은 1930년대 후반 동인지지를 중심으로 구축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시지에 많은 개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함으로써, 시지와 시인의 관계를 살펴 기존 문학사를 새롭게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2장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시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지와 시인의 그룹을 검토하였다. 당대 시지는 지방, 편집자 겸 시인, 시인의 겹침을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시지 간 가중치를 통해 관계의 힘을 살필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시인 간 네트워크를 중심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통해 영향력 있는 시인은 대부분 시지의 발행과 편집을 주도하였다. 매개 중심성을 통해 시지의 그룹을 연결하는 시인을 확인함으로써 작품 발표 외에도 시지를 운영하는 시인들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사에서 비가시적 시인들에 주목함으로써 문학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1930년대 후반, 동인지지, 근대 시인, 사회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 인문학

* 제1저자,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강사

** 교신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1. 들어가며

한국 시문학사에서 1930년대 후반(1936~1940)은 “未曾有의 同人誌洪水時代”¹라고 부를 만큼 『낭만』(浪漫), 『시건설』(詩建設), 『시인부락』(詩人部落), 『자오선』(子午線), 『시인춘추』(詩人春秋), 『생리』(生理), 『맥』(纍), 『아』(芽), 『웅계』(雄鷄), 『시림』(詩林), 『시학』(詩學) 등 많은 종류의 동인지지가 발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일본의 극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이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펼친 때이며, 이 시기 발행된 동인지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발행된 동인지와 다른 성질을 지닌다.² 물론 양적 증대가 질적인 면과 필연적으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발행된 많은 양의 동인지를 통해 문학적 열정을 보여준 시인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문학사에서 동인(同人)은 사상이나 문학 이념, 창작 기법 등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문학 활동을 위해 이룬 집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동인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보다 동인을 이루고자 하는 혹은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주관적, 심리적 일체감의 유무에 있다.³ 당대 시지에서 하나의 이념 혹은 주장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선언⁴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이 또한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뜻하는 것일까. 혹은 기성의 권위와 창작 경향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일까. 당대 시인들 스

1 함형수(1936), 「後記」, 『시인부락』 2, 시인부락사, p. 42.

2 조연현(1989),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p. 508.

3 남기혁(2015), 「현대 시문학사에서 동인·동인지 활동의 역할과 의미」, 『문예연구』, pp. 180-181.

4 시인부락 1집 「후기」에 서정주는 “벌써 여기다가 꼭 무슨 빛깔있는 旗幟를 달아야만 멋진가?”라고 반문하면서 “여러가지의 果實과 꽃과 이를 즐기는 여러 가지의 食口들이 모여서 살기를 希望”한다고 언급했으며, 맥 6집 후기에 김복원은 『맥』이 동인지로서 선언이 없다는 세간의 비평을 지적하면서 “잡지로서의 어떤 『스타일』을 먼저 추켜드는 요 짜든 俗趣가 우”습다고 말한 바 있다[김복원, 「後記」, 『맥』 6, 맥사, p. 33].

스로가 이 시기 발행된 시지를 “동인지”(同人詩誌)로 명명⁵했기에, 이들이 말하는 ‘동인’이 어떠한 원리로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불교 전문학교의 동기인 함형수가 “시 잡지나 하나 내놓아볼까!”라는 제안에 하게 된 것이 『시인부락』이다. 나와 함형수는 며칠 뒤 우리 시의 믿을 만한 선배의 하나이고, 또 나와는 같은 출신인 용아 박용철 선생 댁을 찾았다. 마침 인연이 닿아 그 자리엔 전남에서 상경한 영랑 김윤식 선생이 동석하고 있었고 영랑이나 용아 두분 다 우리의 취지를 대찬성해주시어 뜻을 굳히게 되었다. 더구나 용아는 친구인 시인 정지용의 제일 애제자라며 오장환 군의 천거도 해주었다. 그다음 우리는 당시의 유력한 문학청년으로 서양 문학 쪽의 조예에도 유능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다 이성범과 이용희 군의 서양어 학력과 문학 교양력을 믿어 동인으로 흡수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서정주, 「나의 동인지 시대」⁶

이 글은 서정주가 중앙불교 전문학교 재학 시절 동기인 함형수와 함께 『시인부락』을 기획하고 동인을 결성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시인부락』 동인을 모집하기 위해 선배 시인의 자문을 얻기도 했으며, 동인지의 내용을 충실히 만들기 위해 그 분야에서 능력 있는 문학도를 찾기도 했다. 이는 동인지를 통해서 시(詩)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시인들의 노력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동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학연, 지연, 친분과 같은 다양한 관계를 활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실제 동인지를 살펴

5 『시학』 1집에 두 개의 설문이 수록되어 있다. “詩壇人的 同人詩誌觀”에서는 동인지 존립의 의의, 현상, 주목되는 시인에 대한 견해를 보여주며, “同人詩誌의 現在와 將來”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 설문에서 시인들은 동인지의 주장, 방침, 희망 등을 서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시인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시지가 동인지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서정주(2017), 「나의 동인지 시대」, 『미당 서정주 전집』 11, 은행나무, pp. 20-22 참조.

보면 인적 구성 외에도 시인, 출판사, 독자, 광고 등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체의 연결을 통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잠재한다.

이처럼 한 권의 시지 안에 다양한 개체와 관계들이 존재함에도 1930년대 후반 시지를 논한 기왕의 연구는 시지에 수록된 작품과 시인을 표로 정리함으로써 시지를 단일한 개체로서 다루어왔다.⁷ 이 중 『시인부락』은 생명파(生命派)라는 유파의 구심점으로 지목되며 논의가 많이 진행된 편이나 서정주, 오장환 등 개별 작가와 작품에 편중되었다.⁸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관점이 현존하는 문학 평가라 할지라도 당대 발행된 잡지를 검토하는 일은 문단의 형성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에 하나의 시지 안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상호작용하기에 이를 단순히 유파나 단일한 개체로 환원하는 문학사 연구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 문학사에서 포섭되지 않은 채,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시지들을 다룰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1930년대 후반 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2010년 이후부터 전개되었다. 강호정은 시지에 수록된 시인들의 설문, 편집 전기, 후기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당대 시단의 흐름을 읽어내려고 했으며,⁹ 지방에서 발행된 시지들이 중앙과의 연계를 통해 문학장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고찰했다.¹⁰ 나민애는 1930년대 발행된 시지 『맥』, 『시학』, 『낭만』, 『시건설』 등을 각각 지속해 논구했다. 각각의 시지를 세밀하게 고찰한 그의 논

7 정연길(1991), 「1930년대 후반기 시 잡지론: 「시원」, 「낭만」 및 「카프」 해산 전후시단」, 『논문집』 15, 한성대학교, pp. 5-93; 정연길(1992), 「1930년대 후반기 시 잡지론(2)」, 『논문집』 16, 한성대학교 pp. 5-37; 최덕교(2004),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8 김용직(1996), 「시인부락시대」,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pp. 29-111; 이은정(1998), 「『시인부락』의 모색과 도정」, 『상허학보』 4, 상허학회, pp. 437-473.

9 강호정(2011), 「1930년대 후반 동인지지연구」, 『한국학연구』 3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pp. 105-128.

10 강호정(2015), 「1930년대 시전문 동인지와 로컬리티」, 『한민족문화연구』 51, 한민족문화학회, pp. 109-138.

의는 단일한 개체로서의 시지 읽기로 보이지만 각각의 시지를 통해 당대 시지의 지형을 그려보려는 장점을 지닌다. 시지를 통해 시인의 겹침이나 관계들을 살펴보는 시도¹¹는 본고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최호빈은 선행 연구가 동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분석을 했음에도 1930년대 후반 동인지 속출 현상 배경 및 당대 문학 장을 조망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장기 말소 사건과 『시인부락』의 등장을 연결해 파악함으로써 동인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려는 단초를 보인다.¹² 이처럼 1930년대 후반 시지에 관한 논의는 단일한 개체로서의 특성에서 확장해 시지 간 연결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시지의 지형을 고찰하고자 했다. 게다가 동인지 속출 현상을 당대 제도 혹은 사회적 현상과 결부함으로써 하나의 예술작품이 사회적 요소와 밀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선행 연구는 1930년대 후반 동인지의 속출 현상에 주목하면서 서도 방대한 양의 시지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량적 탐색을 시도한 전도현과 이재연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 전도현은 1906년에서 1945년까지 근대잡지에 게재된 문학작품을 토대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당대 문학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¹³ 다만, 통계를 통해 당대 경향과 문학사적 의미를 검토할 수는 있었으나, 잡지 안에 담긴 관계의 속성을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이재연은 작가“들”

11 1930년대 발행된 시지에 관한 나민애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민애(2014), 『『맥』지와 함북 경성의 모더니즘』, 『한국시학연구』 41, 한국시학회; 나민애(2015), 「1930년대 후반 『시학』지와 신세대 시인의 시적 이상」, 『어문연구』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나민애(2016b), 「제2의 동인지 세대와 『낭만』지의 시사적 의미」,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나민애(2016a), 「1930년대 후반 ‘제2의 동인지기’와 윤공강의 역할」,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나민애(2017), 「1930년대 후반 최북단 동인지 『시건설』 연구: 신진 시인들의 기획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 최호빈(2018), 「1930년대 후반 동인문학 장의 형성과 세대론의 전개: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회, pp. 325-350.

13 전도현(2013),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 4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pp. 131-159.

이 맺는 인적 관계의 연속과 확장, 재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1920년대 신문과 잡지에 투고된 소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작가와 매체가 항상 연결되어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찰했다.¹⁴ 이는 기존 문학사를 통해 고찰했던 지점과 다른 형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문학에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레티는 그동안의 문학 해석이 의미에 치중해왔다면, 그는 의미와 힘의 관계까지 통찰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하나의 개체인 점이 선에 의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문학작품의 인물, 배경, 플롯 등에 적용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작품의 방향, 비중, 의미론 등의 층위를 새롭게 바라본 바 있다.¹⁵ 기왕의 연구가 하나의 개체를 통해 그 개체가 속한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이었다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연결로 구성된 관계형 데이터를 구축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각화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¹⁶ 이를 1930년대 후반 시지에 적용한다면 시지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과 그들의 작품을 각각 하나의 개체로 처리함으로써 동인 간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로 통찰할 수 있으며, 이는 1930년대 후반 시단의 지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 암시적으로만 보여주었던 시인과 시지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및 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과 정보공학을 융합함으로써 기존 문학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인문학 연구에서 재현성 보장은 물론 데이터 공유를 통한 학문적 축

14 이재연(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 17,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p. 257-301.

15 프랑코 모레티(2021),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pp. 309-342.

16 김용수(2021), 「사회 연결망 분석과 문학 연구: 영미문학과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26(2), 한국비평이론학회, p. 58.

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1930년대 후반 시지와 시인을 사회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Gephi를 활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개체로서의 노드를 시지와 시인으로 각각 설정하고, 시지와 시인들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 시지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 문학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지와 시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

이 글은 1930년대 후반 시지와 시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1) 1930년대 후반 시지와 시인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2) 이를 토대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고, 3) 마지막으로 분석 및 시각화 결과를 토대로 인문학적 해석을 시도했다.¹⁷

연구의 주된 대상인 1930년대 후반 시지는 1936년 11월 5일부터 1940년 6월 25일까지 발행된 『시건설』, 『낭만』, 『시학』, 『맥』, 『시인춘추』, 『시인부락』, 『자오선』, 『시립』, 『아』, 『웅계』, 『생리』, 총 12종을 포함한 것이며, 252명의 시인이 수록한 작품 1201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시기 자료는 한국문화개발사에서 발행한 『한국시잡지전집』(韓國詩雜誌全集)과 대학사에서 발행한 『한국시잡지전집』을 기초로 하였으며,¹⁸ 잡지에 누락된 자료는 전

17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데이터와 연구 프로세스 및 결과물은 <https://osf.io/nv4kh/> 혹은 <https://doi.org/10.17605/OSF.IO/nv4kh>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문학 연구에서의 재현성 확보를 보장할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고,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18 한국문화개발사(1974), 『韓國詩雜誌全集』 4~5, 한국문화개발사; 심한보 편(1988), 『韓國詩雜誌集成』 3~4, 대학사.

[표 1]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1930년대 후반 시지와 시인의 데이터

이름	권호	연도	월	일	발행인	발행인 주소	출판사	출판사 위치	필명	필명 (한자)	본명	작품명	분류
시건설	1	1936	11	5	김익부	생략	시건설사	생략	김창술	金昌述	김창술 (金昌述)	地平的錯覺	시
시인부락	2	1936	12	31	서정주	생략	시인부락사	생략	상해	象海	이용희 (李用熙)	현대시의 「主智」와 「主情」	평론
맥	4	1938	12	29	김정기	생략	맥사	생략	광고			시인춘추 제4집	광고
시학	3	1939	8	28	한경석	생략	시학사	생략	방수룡	方壽龍	방수룡 (方壽龍)	遺言	추천 시

수 조사를 통해 확보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는 시지의 이름, 권호, 연도, 월, 일, 발행인, 발행인 주소, 출판사, 출판사 위치, 발행주소별 이름, 인쇄인, 인쇄소, 인쇄지,¹⁹ 필명을 한글과 한자로 나누었고, 필명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인의 본명을 추가하였다. 시인의 본명은 문인 사전을 참고했으며, 사전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은 필명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작품명과 시지에 수록된 내용 등을 ‘분류’라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항목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의 예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데이터를 구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지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에 총 12종의 시지가 해당한다. 각각

19 발행주소별 이름, 인쇄인, 인쇄소, 인쇄지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를 위해 구축하였으며, 조금이나마 완전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하여 함께 공개했다. 1930년대 후반은 시지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시집이 발행된 시기이다. 이에 출판 유통과 관련한 항목이 필요할 것을 예비하여 발행 및 편집인 외에 인쇄인 및 인쇄소와 인쇄지를 추가하였다. 인쇄소 외에도 총 판매소를 적는 시지들이 있었으나 이는 많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 평론 등에서 언급한 시인들의 이름과 작품, 추천 시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 시지에 따라 발행된 호수를 살펴보면 『시건설』은 총 8집, 『시학』과 『맥』은 총 5집, 『시인춘추』,²⁰ 『시인부락』, 『아』, 『시림』,²¹ 『생리』는 총 2집까지 발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지 발행주기는 정확하지 않은 편이며, 『낭만』, 『자오선』, 『응계』는 발행 호수가 중간호가 되었다.

시지에 수록된 내용을 “분류”라는 항목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은 광고, 당선 소감, 독자시단, 번역 시, 번역 평론, 사고(社告), 산문, 설문, 시, 시조, 추천 시, 투고 시단, 편집 전기, 편집 후기로 구분했다. 이는 대부분 시지 안에 쓰인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 글은 1930년대 후반 시지와 시지, 시지와 시인, 시인과 시지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분류” 중에서도 시, 시조, 추천 시, 당선 소감, 투고 시단, 독자시단, 번역 시, 번역 평론, 평론을 선택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시인과 시지의 관계를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배제한 항목도 존재한다.²²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Gephi 0.9.2²³를 활용²⁴했다. 본 연구의 내용이

20 『시인춘추』는 2집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맥』 4집의 광고를 통해 4집까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2집까지는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기초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1 『시림』은 총 3집까지 발행된 것으로 보이나, 2집은 원문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1집과 3집만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22 시인과 시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를 발표한 시인을 가장 먼저 데이터에 포함했다. 특히 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지이지만 투고 시단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 게재한 곳도 있어 이를 표기해 포함하였으며, 독자의 작품을 게재해 “독자시단”을 설정한 곳도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학』의 경우 추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천시와 시인이 쓴 당선 소감도 포함하였다. 번역도 시인의 번역이자 창작으로 간주했고, 평론의 경우 시(詩)에 관한 논의, 동인지지에 관한 논의, 당대 시집에 대한 평을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이 집필했기에 데이터에 분석 대상에 넣었다. 다만 광고, 사고, 설문, 편집 전기, 편집 후기, 산문의 경우 시지에 참여하지 않았던 문인이나 신원 미상의 시인들이 포함되어 배제하였다.

23 Gephi: <https://gephi.org/>

24 Gephi의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와 조작은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CDDL)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with Classpath exception 등

시지와 시인이라는 속성이 다른 두 대상에 관한 연구이므로, Gephi의 Plug-in인 MultimodeNetworks와 Transformation Plugin을 통해 2-mode(이원모드) 그래프를 1-mode(일원 모드) 그래프로 변환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Average Degree, Network Diameter, Modularity를 사용하였고, Lay out은 관계성에 집중하는 Yifan Hu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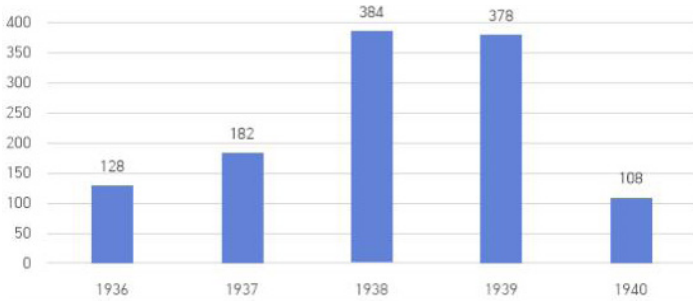
3. 시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그룹화

네트워크(network)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그물처럼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네트워크에서 연결 대상은 점인 노드(node), 연결을 보여주는 선인 링크(link)로 부른다.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노드가 상호 고유한 속성을 지닌 행위자를 나타낸다면, 링크는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즉, 네트워크는 복수의 노드들이 연결된 구조이며, 네트워크의 핵심 속성은 '연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관계'(relation)로 본다.²⁵ 이를 1930년대 후반 시지에 적용해 본다면 시지 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시지에 작품을 수록한 시인들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시단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930년대 후반 시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노드를 시지로 설정함으로써 총 12종의 시지의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시지의 지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시기별로 시지에 얼마나 많은 양의 작품이 발표되었는지 조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시지에 발행된 시와 평론을 포함한 작품 편수의 연도별 추

두 개의 License를 적용한다.

25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p. 39.



[그림 1] 연도별 작품 편수 변화

이를 보여준다. 이는 작품의 증가와 감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 호수에 따른 시지를 반영하지 못해 시지와 시인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없다. 다만 그래프에서 1938년과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의 양적 지표를 통해 이 시기가 시(詩)의 절정기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래프는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1936년부터 시작된 시지의 발행 속에서 1938년과 1939년에 왜 획기적인 변환점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다른 근거를 통해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이다.²⁶ 이 시기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 종합지가 폐간되었고, 일제의 검열과 출판 제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중일전쟁의 발발(1937)과 함께 국제 지가(紙價)의 상승으로 1937년 말까지 약 30종의 잡지가 중단된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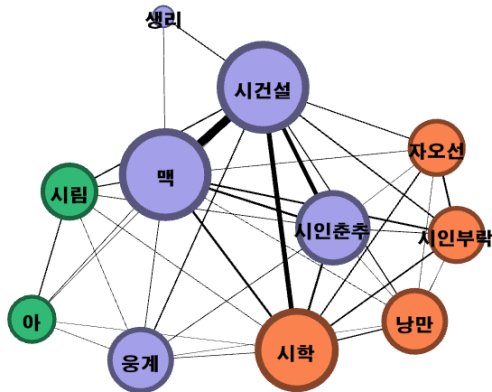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작품의 편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당대 동인지지가 증대한 원인으로 “작품을 발

26 모레티는 계량적 연구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작품을 집적해 시간별 추이를 관찰하면서 쇠락과 몰락 뒤에는 항상 정치라는 같은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와의 상반성 외에도 가능성 있는 요인을 통해 그는 사건, 주기, 장기지속이라는 틀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그림 1]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했다[프랑코 모레티(2020), 이재연 역, 『그래프, 지도, 나무』, pp. 12-34].

27 최호빈(2018), pp. 337-338.

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동인지의 욕구²⁸가 생긴다고 언급했음을 고려할 때, 작품 발표 경로를 잃어버린 시인들이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 동인지지에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0년에 이르러 시 장르가 급감하는데, 시 장르의 위축 대신 1940년대 소설과 평론 장르가 신장하는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에 호응하는 시론 류의 글들이 많이 발표²⁹되었음과 연관을 볼 수 있다.

물론 양적 지표를 통한 인과적 해석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으며, 더 많은 해석이 존재한다. 이 지표는 당대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는 있으나 시지의 참여한 시인들의 관계 혹은 상호 작용은 알 수 없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지와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1930년대 후반 시지의 네트워크 그룹화³⁰

28 五行子(1939), 「동인지시비」, 『시학』 1, 시학사, p. 45.

29 전도현(2013),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 4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p. 144.

30 그림은 Gephi의 Modularity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Resolution 값을 0.6으로 설정했다. 이는 R. Lambiotte, J.-C. Delvenne, M. Barahona Laplacian Dynamics and Multiscale Modular Structure in Networks 2009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림 2]는 구축한 데이터틀 기반으로 시지를 그룹별로 나누는 것이다.³¹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각각의 시지가 색을 달리하며 세 그룹으로 분리된다는 점, 둘째, 시지를 보여주는 노드(점)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점, 셋째 시지를 연결하는 선들이 굵기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시지를 보여주는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시지에 투고한 시인들이 많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연스레 하나의 시지가 여러 차례 간행된 것과 비례한다. 노드를 이어주는 선의 굵기는 동일 작가가 각기 다른 시지에 투고한 횟수를 의미하며 선이 굵을수록 각각의 시지에 시인들의 투고가 많이 겹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색으로 표현된 각각의 그룹은 크게 1) 시건설-맥-시인춘추-옹계-생리라는 한 그룹, 2) 낭만-시인부락-자오선-시학에 해당하는 그룹, 3) 시림과 아를 포함한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시건설과 맥, 시학과 시인춘추는 다른 시지에 비해 노드가 크다. 당대 발행된 시지들이 창간호가 중간호거나, 2집으로 중간했다면 이에 비해 시건설은 8집, 맥은 6집, 시학은 5집까지 발행했기 때문이다. 시인춘추도 지금은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시지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최대 4집까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특히 시건설을 중심으로 맥, 시인춘추 그리고 다른 그룹에 해당하는 시학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굵게 표시되었다. 선이 굵게 나타난다는 것은 시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가중치(weight)가 높음을 통해서도 드러난다.³³ 특히 시건설과 맥의 가중치는

31 시지 간 네트워크를 고찰하기 위해 Modularity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Modularity 기법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집단을 탐색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기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단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김용학·김영진(2019),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p. 146].

32 물론 시지의 발행 횟수에 비례하여 노드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단순히 시지에 수록된 작품이 많을수록 당대 시단에 기여도가 크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당대의 시단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시지에 수록된 작품이 많은 것은 분명 수록된 작품이 없는 것보다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3 gephi에서 가중치(weight)로 평가한다. 가중치(weight)는 노드에 연결된 선의 개수와 함께 연결의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결이 많은 노드는 중요하다고 판단될 뿐아니라

다른 시지들의 관계보다 월등히 높으며,³⁴ 이는 각각 평북과 함북이라는 북한 지역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시건설은 김익부(金益富, 필명: 김남인)가 편집 및 발행인으로서 평북 중강진에서 발행한 시지이다. 김익부는 편집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복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시건설에 수록된 시는 편집자의 취향에 의해 게재를 결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당대 발행된 여타 시지와 달리 시건설은 1호(1936년)부터 발간 동인 김창술, 정강서, 김병호, 김해강, 김남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창간호부터 시인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지가 발행될수록 발간 동인이 시지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건설은 점차 “기성(既成)과 신인(新人)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시인을 모집³⁶함으로써 시단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방에 위치해 발생하는 연락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³⁷ “시의 부흥”을 위해 각 지역의 시인들과 연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시건설』과 깊은 관계를 지니는 『맥』 또한 시건설과 마찬가지로 편집자이자 시인인 김정기(金正琦)가 발행한 시지이다. 『맥』은 발행소와 출판사 모두 경성(京城)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함경도 출신 시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진(淸津)에서 나온 시지이다.³⁸ 『맥』은 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투

가중치를 통해 중요한 연결과 중요하지 않은 연결 또한 구분가능하다[김우주(2017),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p. 17].

34 시건설과 맥의 가중치는 400, 시건설과 시학은 223, 시건설과 시인춘추는 188에 해당한다.

35 시건설 1집에서 김남인은 투고한 많은 시인들의 시를 못 신는다고 언급하면서 투고한 시의 제목을 한 페이지에 다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편집자를 기준으로 시편들이 시지에 게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남인 외에도 김해강이나 이석훈 등이 편집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동인들의 안목에 의해 시건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6 김해강(1937), 「편집 후기」, 『시건설』 3, 시건설사 p. 62.

37 “일찍 내놓려는 것이 펴 늦어졌다. 역시 모든 連絡이 그렇게 빨르지 못한 地域인 탓도 있고”[김남인(1938), 「편집 후기」, 『시건설』 4, 시건설사, p. 44].

38 윤길수(2014), 「시동인지 『맥(貓)』에 대한 小考」, 『맥』 11호, 선우미디어, p. 32.

고를 허용함으로써 주요 동인 외의 시인들이 시지에 참여할 수 있었다.³⁹ 『맥』 6집을 발굴한 윤길수는 박남수의 견해를 토대로 『맥』지에 주요 동인과 기고 동인이 존재함을 언급하면서, 『맥』에 참여한 시인들을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분류한 바 있다.

평안도에서는 양운한, 김남인, 김우철, 박남수가 참여했고, 충청도에서는 이 지역 동인지 『시인춘추』에 가담한 이해문, 윤곤강, 박노춘, 이가중, 박노홍, 마명, 이고려, 김광섭 등이 대거 참여했다. 윤곤강과 이가중은 친척 지간이고, 박노홍, 마명, 이고려, 김광섭은 출신이 확인되지 않는다. 경상도에서는 김대봉, 김용호, 김상옥, 장응두가 참가했다. 김용호는 김대봉의 소개로 들어왔고, 김대봉은 평양의전 출신으로 창간 동인으로 참여했다. 통영의 장응두는 청진에 와 있던 김상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전라도에서 서정주가, 황해도에서는 장만영이 참가했는데 단순 기고에 의한 가담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이상, 임화, 김정기가 있었다. 김정기는 서울에 있으면서 맥사(貓社)에서 동인지의 출판을 담당했고, 임화의 가담은 의문이다. 단순 청탁에 의한 기고라 하더라도 경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⁴⁰

인용은 『맥』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시인들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맥』 또한 『시건설』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해당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게재함으로써 범시단적인 면모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시건설』은 5집(1938. 8)부터 『맥』은 3집(1938. 10)부터 각각 발매소를 경

39 “당시의 『맥』지 동인지는 동인 아닌 사람에게도 집필을 허용하였는데, 함윤수와 같은 함경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인 조직이 돼 있었지요, (중략) 그때의 『맥』지는 기성, 무명을 가리지 않고 젊은 시인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주었지요, 난 『맥』지의 청탁을 받고 작품을 보냈는데, 그 전에 「조선중앙일보」나 중강진에서 나오던 『시건설』이라는 시잡지에도 작품 활동을 했었지.” [박남수·김중해(1998), 「시적 체험과 리얼리티」, 『박남수 전집』 2, 한양대학교 출판원, pp. 80-81]

40 윤길수(2014), p. 33.

성(京城)과 함경북도, 평양에 신설했다.⁴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건설』과 『맥』은 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문단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시단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자 했다. [그림 2]에서 시건설과 맥은 노드의 크기가 크고 같은 색의 그룹에 해당하는데, 이는 두 시지 모두 시지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건설과 맥 외에도 시인춘추, 응계, 생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노드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색을 띠며 하나의 그룹으로 존재한다. 응계의 경우 1집만 발행되었음에도 『시건설』의 편집 및 발행인인 김남인이 『응계』에 시를 발표했으며, 시건설에 투고했던 시인 또한 응계에 투고하고 있어 같은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한 그룹으로 형성된 시지의 관계는 서로의 시지를 홍보해줌으로써 시지 간 친연성을 알 수 있다. 『맥』 3집은 『시인춘추』 3집, 『시건설』 6집의 홍보와 『시인춘추』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이해문의 시집 광고를 싣고 있다. 『맥』 4집에도 『시인춘추』 4집, 『시건설』 신춘호(1938. 12)에 대한 소개가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지의 홍보를 도맡아 함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건설』과 『맥』, 『시인춘추』의 친연성은 『맥』의 편집자 겸 시인인 김정기가 『시학』 2집까지 발행한 점을 미루어 이들과 다른 그룹인 시학까지도 연결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시건설과 시학을 연결하는 선이 굵음은 이를 방증한다. 서로 다른 그룹의 시지일지라도 편집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지의 구심점인 보라색 그룹의 대부분은 발행소는 경성(京城)에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평북 중강진의 『시건설』과 부산의 『생리』를 제외하고 충남 예산의 『시인춘추』, 함경북도의 『맥』이 이에 해당한다.⁴² 이 그룹과 초록색 그룹인 『시림』과 『아』 또한 경남 함안에서

41 『맥』 3집의 판권지와 광고를 통해 『맥』사의 확장과 서울 외에 함북 청진, 평양의 판매소를 신설했음을 볼 수 있다(『맥』 3, 맥사, 1938. 10. pp. 19-20).

42 강호정(2015), 「1930년대 시전문 동인지와 로컬리티」, 『한민족 문화연구』 51, 한민족문화

실질적 업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대 시지의 발행과 출판은 경성에 있었으나 시지의 업무는 지방에서 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에 발행소를 두거나 실질적 업무를 맡은 시지들이 1930년대 후반 시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당대 시인들이 지방을 택한 것은 검열망에서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점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방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면서 전국에 있는 시인들과의 연락을 통해 범시단적인 규모를 기획하고자 했던 시지들의 권력투쟁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라색 그룹의 시지 대부분은 편집 전기 혹은 후기가 수록되어 시인 혹은 시지의 지향점을 넉넉히 밝히고 있다. 그들은 모두 동인지라든가 태두리 안에서 카프 문학에서 행해졌던 이념을 버리고 시인으로서의 개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시를 창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논자들에게 동인의 결속력이 낮아 동인지로서의 성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의 행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시지에 투고함으로써 시지와 시인 간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다시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보라색 그룹이 지방에 중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주황색 노드인 낭만, 시인부락, 자오선, 시학 그룹은 시인 간 겹침이 뚜렷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낭만과 자오선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민태규와 시인부락의 편집자이자 발행인인 서정주, 실질적으로 시인부락을 주도한 오장환,⁴³ 시학을 주도했던 윤곤강 등을 주축으로 일련의 시지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과 대조적으로 이들 시지는 모두 경성을 중심으로 발행되었다.

학회, p. 112.

43 『시인부락』 2집은 경성부 윤니정 24번지이며, 이는 오장환의 집을 발행지로 하여 오장환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정우택(2019), 「1920~30년대 동인지의 동향과 특성」, 『시작』 18, 천년의 시작, p. 28].

이처럼 1930년대 후반 시지는 시건설과 맥을 구심점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특히 시건설과 맥처럼 지방에서 발행된 시지의 경우, 중앙 문단과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범시단적인 면모를 기획했다. 이는 시지를 통한 시인들의 열정을 보여주며, 시인들이 시단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려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시지 안에 담긴 모든 정보 또한 수많은 관계들을 내포하기에 이제는 단일한 개체를 중심으로 다룬 논의에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시지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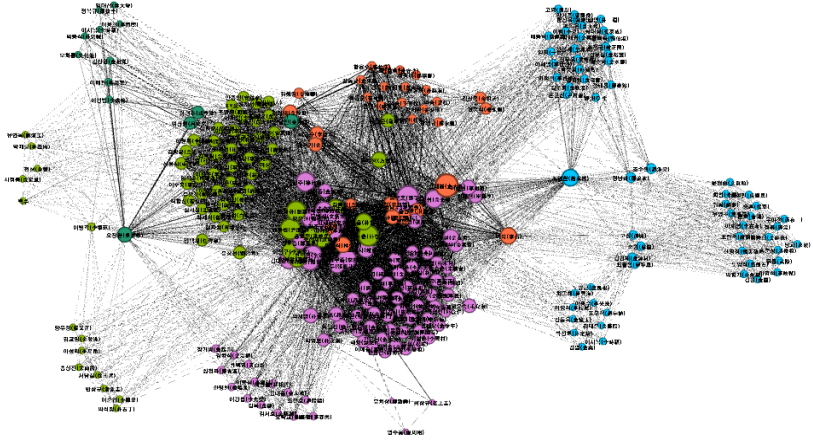
4. 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중심성 분석

1930년대 후반 시지를 논하는 기왕의 연구는 문단에서 권력을 확보한 시인을 중심으로 그의 시편이 실린 개별 작품에 편중되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1930년대 후반 시지를 검토한 결과, 이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시지들과 그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의 내밀한 네트워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대 발행된 시지의 대부분은 문학사로 포섭되지 않지만 시인들은 시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1930년대 후반 시지에 참여한 시인 모두를 포함하여 개별 시인이 지닌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용어는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를 의미한다.⁴⁴ 이러한 중심성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시지에 참여한 시인의 네트워크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 www.kci.go.kr

44 이수상(2012), 『네트워크분석방법론』, 논형, p.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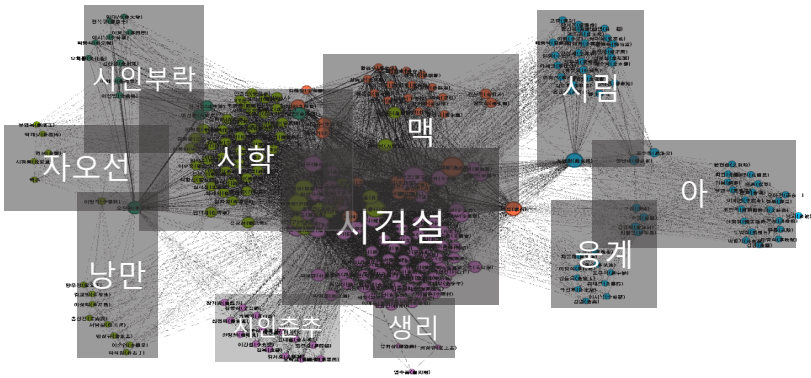


[그림 3] 1930년대 후반 시지에 참여한 시인의 네트워크⁴⁵

1930년대 후반 각각의 시지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은 총 252명이며, [그림 3]은 이를 토대로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중심에 있는 시인 그룹은 크게 세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 두 가지 색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시인 네트워크는 총 다섯 그룹으로 나뉜다.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인 부분 외에 왼쪽과 오른쪽, 즉 주변부인 파란색과 초록색 부분은 중심과 먼 거리로 인해 고립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이 중심과 먼 거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의 시지에만 시를 발표한 시인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주변부에 해당하는 시인들을 검토하면 대부분 무명 신진 시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4]는 시인들의 네트워크에 각각 시인들이 참여한 시지의 이름을 부기(付記)한 것이다. 이는 시지와 시인을 연결함으로써 시인 그룹이 갖는 영향력 또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시건설과 맥의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할 때, 시인 별 네트워크 또한 이들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이

45 시인의 그룹은 총 다섯 그룹으로 결과가 나왔다. 결과값은 Resolution: 1.1로 설정했으며,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으로 세팅했다. R. Lambiotte, J.-C. Delvenne, M. Barahona Laplacian Dynamics and Multiscale Modular Structure in Networks 2009를 활용하였다.



[그림 4] 시지에 참여한 시인과 이에 해당하는 시지의 네트워크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심부를 차지하는 시지와 시인이 상호통함을 보여준다. 주변부는 파란색과 초록색의 그룹으로 분리되며, 시인들이 위치한 곳에 그들이 참여한 시지 이름을 네모 상자에 적었다. 시지의 이름을 적은 네모 상자가 겹쳐있는 이유는 작품을 발표한 그룹의 시인이 다른 시지에도 참여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는 각각의 시지에 참여한 시인들 또한 다른 시인에 의해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인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 외에도 개별 시인들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중심성의 척도로서 시인 간의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검토하였다. 우선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기초로 순위를 매긴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에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시인이 마당발(Hub)로서 자신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즉, 연결 중심성의 값이 크면 그 시인은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⁴⁶ 시인 간

46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가지는 직접적인 영향력, 또는 노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연결의 양을 나타낸다. 노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지표로 '노드가 가진 연결의 수'로 정의할 수 있다[김우주(2017),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pp. 16-17].

[표 2] 시지에 참여한 시인 간 연결 중심성 및 근접 중심성

	Id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1	김대봉(金大鳳)	218	0.865772
2	정우홍(鄭宇洪)	212	0.848684
3	윤봉원(尹朋遠)	189	0.788991
4	박노춘(朴魯春)	186	0.781818
5	민태규(閔泰奎)	175	0.756598
6	서정주(徐廷柱)	173	0.752187
7	이해문(李海文)	172	0.75
8	이가중(李家鍾)	172	0.75
9	김조규(金朝奎)	172	0.75
10	양운한(楊雲閑)	167	0.739255

의 거리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⁴⁷을 통해 측정된다. 예를 들어, 시인 A와 시인 B 모두 세 명의 시인과 고유관계라 할지라도 연결망에서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A와 B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근접 중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시인 A와 교류하는 시인들이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상태로 그들끼리 연결될 수 있음에 비해 B와 교류하는 시인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있어 다른 시인들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다면 두 시인의 근접 중심성은 값을 달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반영해 한 점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근접 중심성이다. 이는 다른 시인들과의 거리(distant)로 측정하며,⁴⁸ 한 시인이 네트워크의 다른 시인과 거리가 짧다

47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얼마나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과 가까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두 노드 간의 '거리(Distance)'는 두 노드 간의 여러 경로 중 최단 경로의 길이로 정의한다.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과 거리가 짧다면 접근성과 전달성이 좋다는 의미이므로 근접 중심성 역시 노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김우주(2017), p. 22].

48 김용학·김용진(2019), p. 121.

면 접근성과 전달성이 좋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시인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표 2]를 통해 연결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의 수치가 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한 시인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시인과 다른 시인 간의 거리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두 값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시인들이 시지의 발행 및 편집자 혹은 시지를 주관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문학사에서 크게 조명받지 않은 시인이 상위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영향력 있는 시인의 위치를 점하는 자들이 그동안 문학사에서 조명받지 못했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인 중에도 이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시인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문학사에서 조명받지 못한 시인이더라도 시지의 발행 및 전개 과정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면 다른 근거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한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시지에 작품을 많이 발표한 것 외에도 시지가 발행되는 과정, 혹은 시지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인적 관계를 확장해 나갔을 가능성을 잠재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영향력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김대봉, 정우홍, 윤봉원을 살펴보겠다.

포백(抱白) 김대봉(金大鳳: 1908~1943)은 동래고보 재학 시절인 1927년 9월 『조선일보』에 「농부의 노래」를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동래고보 재학 시절 그와 동기인 소설가 김정한, 울산의 시조 시인 조순규, 거제의 시조시인 김기호가 있었다.⁵⁰ 이러한 문인과의 교류는 그가 평양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시, 평론, 동요, 소설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그가 1938년 6월 『맥』에 동인으로 활동한 점은 1930년대 후반 시지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는 『맥』지가 4집까지 발행될 때까지 매회 작품을 발표

49 김우주(2017), p. 22.

50 박태일(2021), 「민중 의료와 김해시인 김대봉」, 『한국 지역 문학 연구』 10, 한국지역문학회, p. 16.

했으며, 『맥』 외에도 『아』, 『웅계』, 『시림』, 『시학』, 『시건설』 등에도 투고했다. 특히 그의 첫 시집 『무심』(無心)은 맥사에서 발행했으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⁵¹ 『맥』 3집(1938. 10)에는 그의 시집을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될 뿐 아니라 동아일보에는 그의 시집 출판 기념회 홍보 기사까지 실릴 정도였다. 출판 기념회에 문인들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점만 보더라도⁵² 그가 시단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크다 할 수 있겠다. 김대봉은 의료와 문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섭렵하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시인 간 교류에 힘썼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시지에 작품 발표 외에도 시집발행 및 시인 간 교류를 통해 시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인임을 알 수 있다.

마명 정우홍(鄭宇洪)은 해방 이전까지 농촌 제도를 비판하는 논설과 소설 및 수필을 발표했지만 1935년부터 1940년까지 오롯이 시작(詩作)에 전념했다. 그 편수는 70여 편에 달한다.⁵³ 그는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된 시지에 27편의 시와 짧은 시론 한 편⁵⁴을 발표했으며, 이는 그의 시작 활동 중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작품 발표 수 외에도 시지의 편집 후기를 살펴보면 그의 영향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이해문이 주도하는 『시인춘추』 1집에서 마명은 박노춘, 김복원과 함께 시지를 위해 많이 힘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⁵⁵ 즉 마명은 당대 다

51 한정호(2005),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포백 김대봉 전집』, 세종출판사, pp. 458-459.

52 김대봉의 시집 『무심』은 임화, 윤곤강, 박승걸과 같은 계급주의 진영의 신예 문학인들이 일간지 지상으로 신간평과 작품평을 실어주었으며, 출판 기념에는 동향인 의령 출신 이극로, 양주동, 임화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박태일(2021), p. 17].

53 이은지(2016), 「마명 정우홍 연구를 위한 시론: 1930년대 농민운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p. 190.

54 그는 8호에 이르는 『시건설』 매호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도 『시인춘추』 1, 2집, 『맥』 3집, 『웅계』 1집, 『시림』 3집, 『시학』 4집과 5집에 작품을 발표했다.

55 제2집은 더욱 勇壯한陣容이 整齊될 것을 믿으며, 끝으로 본집을 위하여 많은 편달을 주신 마명, 노춘, 복원 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이해문(1937), 「편집 후기」, 『시인춘추』 1, 시인춘추사, p. 32].

른 시인보다 시지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단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시인춘추』 2집에 발표한 마명의 시 「옥잡화(玉簪花)의 설은 정(情)」은 “남국(南國)의 시인(詩人) 신석정형(辛夕汀兄)에게”라는 부제를 통해 정우홍과 신석정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⁶ 신석정 또한 연결 중심성을 기반으로 당대 활동한 영향력 있는 시인의 상위권에 존재⁵⁷함을 고려할 때, 마명과 신석정은 개별적인 시인이면서 동시에 당대 시지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인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로 정우홍의 시편에는 신석정의 초기 시풍과 유사한 면모가 발견되며, 이를 발견한 기왕의 논의⁵⁸를 미루어 볼 때, 정우홍과 신석정은 단순히 다량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형성된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우홍은 시지의 전개 과정에서 『시건설』과 『시인춘추』 등 여러 시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 창작을 당대 여타 시인보다 왕성하게 함으로써 시인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네트워크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지점이다.

윤곤강이 필명인 윤봉원 또한 주목할 만한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지에 활동하기 전 카프의 일원이었으며, 작품 발표가 어려운 시제에도 불구하고 37년부터 매년 세 권의 시집 『대지』(1937), 『만가』(1938), 『동물시집』(1939)을 출간했다. 출판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세 권의 시집을 발행했다는 것은 당대 시단에 그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시학』에는 윤곤강의 시뿐만 아니라 시집 광고, 시집과 관련한 평론이 게재되었다. 이

56 신석정이 쓴 「나의 문학적 자서전」에는 신석정이 “마명의 소개를 얻어 가지고 석전화상이 계시던 동대문 밖 중앙불교전문강원의 문을 두드렸”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마명과 신석정, 중앙불전 그리고 중앙불전 출신의 시인들과의 네트워크까지 확장될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신석정(2009), 「나의 문학적 자서전」, 『신석정 전집』 5, 국학자료원, pp. 396-397].

57 신석정은 연결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한 [표 2]에서 13위에 위치한다.

58 이은지(2016), pp. 191-192.

는 『시학』의 실질적 편집자로서 윤근강의 역할이 컸음을 증명한다.⁵⁹ 윤근강이 시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편집 및 발행자로서의 민태규가 짝패로 존재⁶⁰했으며, 편집인과의 친분은 그가 시집 출판 및 시지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연결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통해 상위권에 위치하는 시인들은 시인 겸 편집자 혹은 시지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개별적으로 시집을 발행하는 등 복수(複數)의 역할을 담당했다. 『시학』의 편집자 윤봉원, 『낭만』과 『자오선』의 편집 및 발행자 민태규, 『시인부락』의 서정주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복수 역할 외에도 『시인춘추』의 이해문과 박노춘, 윤봉원의 친척인 이가중, 『시건설』의 정우홍, 『맥』의 김대봉과 김조규 등은 시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문학사에서 주목 받는 시인은 아니지만, 계량적 탐색을 통해 다른 시인과의 교류를 활발히 유지하고 시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처럼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지의 전개 과정에 참여한 시인들을 살피는 일은 작품 발표 외에도 시지 운영에 주도적이었던 시인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혹자는 여전히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순위를 보고 의아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문학사에서 이들의 인지도와 문학사적 평가가 팔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력도 없는 시인들을 살펴보면 이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마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지점들이 바로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사회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⁶¹

이처럼 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지의 구성원이자 행위자로서 시

59 신석초는 『시학』의 편집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윤근강이었으며, 민태규는 원고청탁을 맡았다고 회고한다[신석초(1985), 『시학 시대의 회상』, 『시는 늙지 않는다』, 용성, p. 278].

60 나민에는 민태규의 문학적 짝패로서 윤근강을 지목하며, 이들이 같은 시지에 작품을 실는 것으로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나민에(2016b)].

61 이수상(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p. 33.

[표 3] 매개 중심성을 척도로 한 시인 순위

	Id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김대봉(金大鳳)	3669.875	218
2	정우홍(鄭宇洪)	1929.832	212
3	조연현(趙演鉉)	1293.473	142
4	이석(李石)	1117.854	138
5	윤봉원(尹朋遠)	993.5488	189
6	서정주(徐廷柱)	882.4958	173
7	박노춘(朴魯春)	855.3979	186
8	김광섭(金光燮)	825.0874	156
9	이무종(李務種)	763.1854	162
10	민태규(閔泰奎)	725.0708	175
11	방수룡(方壽龍)	686.792	123
12	오장환(吳章煥)	624.0404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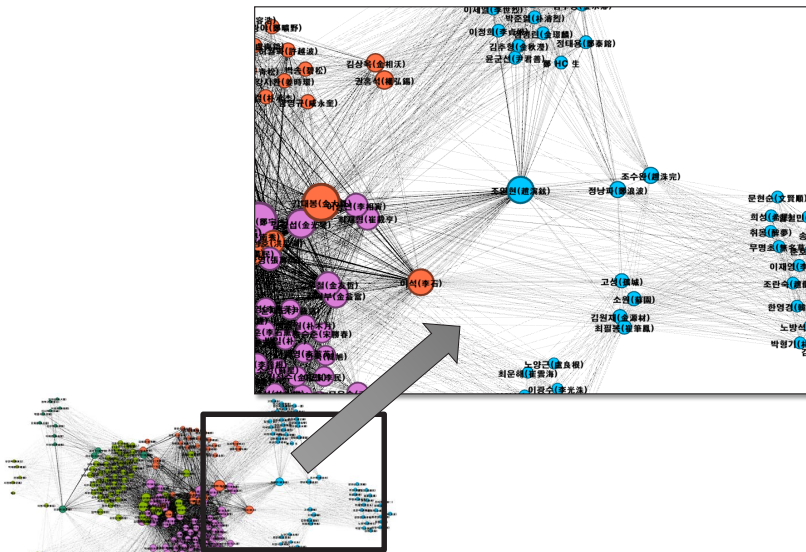
인들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시지의 전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가시적 네트워크는 정우홍과 민태규, 윤곤장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통계적인 방법으로 시인들의 관계에 내재한 구체적인 속성을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학사에 배제된, 논의되지 못했던 시인들의 활동 및 관계를 검토하며, 당대 시단을 조망할 수 있었다.

위의 [표 3]은 앞서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통해 본 시인들과 차이를 보인다. 매개 중심성으로 시인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시인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자의 존재(Linker)를 표현한다. 즉, 시인들의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척도가 바로 매개 중심성이다.⁶² 시인 네트워크에서 한 시인이 다른 시인을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는

62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어떤 노드에 대하여 그 노드를 통해 연결되는 노드들의 수를 반영한다. 따라서 큰 군집들을 연결해주는 노드라면 매개 중심성 값이 크다 [김우주(2017), p. 18].

위치에 있는지는 매개 중심성을 통해 드러난다.매개중심성이 높은 시인은 서로 다른 동인지에 참여한 시인들을 상호 연결해준다. 만약 매개중심성이 높은 시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각각의 동인지 간의 교류가 끊어지거나 약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 3]에서 주목할 시인으로 조연현, 방수룡, 오장환이 있다. 이들은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는 목록에서 상위권에 존재하지 않지만,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는 목록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한 시인들이기 때문이다. 조연현은 특히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10위권에 존재하지 않지만,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할 때 3위에 등재되어 있다 시인의 네트워크 속에 조연현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하단은 앞서 살핀 시인 간 네트워크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이를 확대한 모습이다. [그림 5]에서 조연현은 상단의 『시림』과 하단의 『아』를 이어주는 연결자로서의 노드를 취한다. 그는 중학생 신분으



[그림 5] 연결자로서의 조연현

로 동인지를 발행했던 경험을 회고한 바 있으며, 확대된 그림에서 조연현의 왼쪽 연두색 노드로 발견되는 유동준과 상단 그룹(『시림』)에 속한 정태용과 교류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⁶³ 게다가 『시림』의 투고 주소는 조연현의 집 주소이며, 조연현은 시림의 편집 후기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시지 곳곳에 그의 고향인 경남 함안의 상점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그가 지방에서 실질적인 시지 업무를 통해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도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김원재, 조수완, 이영식, 이석, 박형기 등과 『아』를 주도했으며, 이는 조연현의 노드 옆에 조수완이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조연현이 없었다면 두 그룹은 서로 알게 될 일이 없을 정도로, 1930년대 후반 동인 시지의 네트워크에서 조연현의 존재가 중요함을 매개 중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시인 네트워크의 오른쪽에 조연현이 있다면 왼쪽에는 『시인부락』, 『자오선』, 『낭만』, 『시학』을 잇는 오장환이 존재한다. [그림 3]의 왼쪽에 각각의 그룹을 잇는 초록색 노드가 바로 오장환이다. 오장환은 1938년 종로에 남만 서고를 경영함으로써 서정주와 김광균의 첫 시집을 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점은 오장환이 문인들 네트워크에 매개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⁶⁴ 그는 『낭만』을 통해 카프에 참여한 시인들과 교류했으며, 시인부락을 통해 서정주 및 동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낭만과 자오선을 발행한 편집자 민태규와도 연결⁶⁵됨으로써 시인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장환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 방수룡은 오장환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한다. 방수룡은 1938년 『시인춘추』에 시를 발표하고 『시학』 2, 3, 5집에 세 편의 시를, 『시림』 3집에 한 편의 시를 발표한 것이 전부다. 여기

63 조연현(1977), 「文學的 散步」, 『조연현 문학전집』 1, 어문각, p. 108.

64 정우택(2015), p. 136.

65 『시학』 5집에서 민태규는 오장환의 작품을 평가하면서도 교우관계여야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주목할 것은 그가 『시학』 추천제를 통해 전문적인 시인의 자격을 얻었다는 데 있다. 이전에도 『시인춘추』를 통해 작품을 발표한 방수룡이지만, 『시학』은 그를 우대하며 그의 이력 및 당선 소감까지 실고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과 서신을 왕래하는 문인으로 “정지용, 신석정, 장만영, 마명 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⁶⁶ 한 시지에 다른 시인보다 투고한 시가 많지 않음에도 그가 이렇게 연결자로서 순위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교류를 통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가 서울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시인으로 등재된 시점에 함남 덕천에 거주한 점은 북방지역에서 발행된 『시건설』, 『맥』에서 활동한 시인들과의 연결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시건설』 혹은 『맥』처럼 가중치가 높은 시지에 시를 발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인이 당대 시단에 연결자로서 위치한다는 것은 시인들과의 교류에서 형성된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심성을 통해 1930년대 후반 시인 네트워크를 보면 기존 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시인들이 시지를 발표하는 것 외에 여타의 활동을 알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면, 각각의 시인들이 당대의 시단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그동안의 연구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요 시인이 아닌 대상도 포괄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시인, 시단의 역동적인 구조를 새롭게 바라볼 가능성을 내포한다. 게다가 시단의 전개 과정에서 시집 및 작품을 발표한 시인 외에도 시지 발행에 참여한 시인을 검토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 시인 간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 “交友라고는 없고 가끔 文壇人으로 書信往來라도 있는 이는 鄭芝溶, 辛夕汀, 張萬榮, 馬鳴故 金德在 等 諸氏입니다.” [방수룡(1939), 「당선자의 말(1)」, 『시학』 4, 시학사, p. 46]

5. 나가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문학 연구의 가능성

이 논문은 1930년대 후반 시단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1930년대 후반 발행된 시지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시지와 시지, 시지와 시인, 시인과 시지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했다.

첫째, 1930년대 후반 시지들의 관계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시건설과 맥, 지방 시지를 근간으로 하는 중심 그룹 2) 민태규, 윤곤강, 오장환, 서정주를 주축으로 낭만, 자오선, 시인부락, 시학을 연결하는 그룹 3)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시림과 아로 구성된 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1)그룹은 응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을 거점으로 한 시지들이다. 그중 시건설과 맥은 전국에 있는 시인들과 연락을 취해 그들의 작품을 시지에 게재함으로써 범시단적인 면모를 기획했다. 특히 이 그룹이 1930년대 후반 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여타 잡지에 비해 발행회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시지 안에 출신 지역, 창간 동인과 같은 네트워크가 잠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그동안 단일 개체로서 시지를 평가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각각의 시지가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님으로써 시단의 지형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중심성 이론을 토대로 시인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마당발(Hub)로서 영향력 있는 시인들의 대부분은 시지 발행 및 편집자 혹은 시지를 주관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시인 간의 인맥과 시지 발행 과정에서 복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 시지의 발행에 크게 기여했다. 시인 간의 그룹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자(Linker, 매개 중심성)로 시인들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그동안 문학사나 시단에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시인 간의 인적 관계를 통해 시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문학사 연구가 아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틀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개별 작가와 작품에 가치 평가를 둔 논의도 의의가 있지만, 시

지 안에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학사를 새롭게 볼 가능성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억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도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짐은 그 이면에 무수한 시인들의 노력이 존재할 터, 이를 위한 계량적 탐색은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가시화하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1930년대 후반 발행된 시지 총 열두 종과 시지에서 작품을 발표한 시인 252명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론(試論)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시인 252명이 시지에 동시 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만으로 1930년대 후반 시단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차후 이 시기 발행된 시지를 연도별, 권호별로 구체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지와 시인의 관계, 1930년대 후반 전후 시기별 데이터 및 시인 출생지, 시인 활동지, 시지 발행지 등 공간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시인, 편집인, 발행인, 그리고 평론 등에서 언급한 시인들의 이름과 작품, 추천사에서 추천과 피추천 등의 다양한 관계요소를 1930년대 후반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시지와 시인 간의 네트워크를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인 간 교류 네트워크 외에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작품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 네트워크를 보완한다면 당대의 시단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본 논문의 후속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를 연구자들과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한국 근대 시인과 시지, 더 나아가 한국 근대 문인들의 네트워크 문학사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 한국문화개발사(1974), 『韓國詩雜誌全集』 4~5, 한국문화개발사.
 심한보 편(1988), 『韓國詩雜誌集成』 3~4, 태학사.
 최동호·최유찬 편(2014),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연구: 원본 서지 정보 및 문학 텍스트 목록』 IV, 서정시학.

논저

- 강호정(2015), 「1930년대 시전문 동인지와 로컬리티」, 『한민족문화연구』 51, 한민족문화학회.
 강호정(2011), 「1930년대 후반 동인지연구」, 『한국학연구』 3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김용수(2021), 「사회 연결망 분석과 문학 연구: 영미문학과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26: 2, 한국비평이론학회.
 김용학·김용진(2019),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김우주(2017), 『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나민애(2017), 「1930년대 후반 최북단 동인지 『시건설』 연구: 신진 시인들의 기획과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나민애(2016a), 「1930년대 후반 '제2의 동인지'와 윤근강의 역할」,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나민애(2016b), 「제2의 동인지 세대와 『낭만』지의 시사적 의미」, 『우리말글』 68, 우리말글학회.
 나민애(2015), 「1930년대 후반 『시학』지와 신세대 시인의 시적 이상」, 『어문연구』 4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나민애(2014), 「『맥』지와 함북 경성의 모더니즘」, 『한국 시학연구』 41, 한국시학회.
 남기혁(2015), 「현대 시문학사에서 동인·동인지 활동의 역할과 의미」, 『문예연구』.
 박남수(1998), 『박남수 전집』 2, 한양대학교 출판원.
 박태일(2021), 「민중 의료와 김해시인 김대봉」, 『한국 지역 문학 연구』 10, 한국지역문학회.
 이수상(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이은지(2016), 「마명 정우홍 연구를 위한 시론: 1930년대 농민운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이재연(2014),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사이』 17, 국제 한국문학분화학회.
 윤길수(2014), 「시동인지 『맥(貓)』에 대한 小考」, 『맥』 11호, 선우미디어.

- 전도현(2013),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 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한국학연구』 4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정연길(1992), 「1930년대 후반기 시 잡지론(2)」, 『논문집』 16: 1, 한성대학교.
- 정우택(2019), 「1920~30년대 동인지의 동향과 특성」, 『시작』 18, 천년의 시작.
- 정우택(2015), 「오장환과 남만서점의 시집들」,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 조연현(1989),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 최호빈(2018), 「1930년대 후반 동인문학 장의 형성과 세대론의 전개」,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회.
- 한정호(2005), 「포백 김대봉의 삶과 문학」, 『포백 김대봉 전집』, 세종출판사.
- 프랑코 모레티(2021),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 프랑코 모레티(2020), 이재연 역, 『그래프, 지도, 나무』, 문학동네.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the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and Poets of the Late 1930s

Lee, Yumi*

Kim, Ba-ro**

This article conducted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data built around the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of the late 1930s. Assuming that many individuals are included in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the goal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etry and poets and newly examine the existing literary history. An examination of research methods for performing social network analysis i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groups formed between the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as established through network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focusing on the overlap of places, editors, poets. At the same time, the power of the relationships could be examined through the weight between each poetry magazine of literary coterie. The networks between poets were also analyzed through centrality. Most influential poets, according to degree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were found to have led the publication and editing of

* (First Author) Lecturer, Gachon Liberal Arts College, Gach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oetry. By confirming the poets connecting the groups of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through betweenness centralit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poets who operated poems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works. Through this process, the new possibilities of literary history were reviewed by paying attention to invisible poets in literary history.

Keywords Late 1930s, Poetry Magazine of Literary Coterie, Modern Poet, Social Network Analysis, Digital Humanities

